

◆ 특집...소련의 亞太지역 정치·경제전략

안보전략과 시장경제의 함수관계

I. 소련의 개혁정책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리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은 우선 사회주의에 대한 재평가 작업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재평가의 재차원으로 그들은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를 지적한다. 이제 각 분야별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이데올로기 분야에서 고르바초프는 공허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내세웠던 그들 전일자들이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방기했던 것에 대해 정면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모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주의사회의 모순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대외관계에 있어 새로운 사고(Novoe Myshlenie)에 입각한 정책기조로서 자본주의와 평화공존, 절대안보 개념을 공동안보 개념으로 수정, 국제 계급 투쟁론의 수정, 방어적 전략개념의 채택, 상호존재 통합사회의 참여 등 혁명적 개혁을 통하여 군비축소, 군사개입 억제, 새로운 지역질서의 확립, 협상과 타협의 의한 세계평화의 실현 등을 강조하여 미·소 신대립과 중·소 화해를 실현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추진 배경은 경제의 저성장, 개방과 중속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데올로기의 재정립, 소련사회의 선진화 욕구, 스탈린 이후 세대의 부상 등을 들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은 경제부문에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제도의 개혁을 위해 경영관리의 자율화, 수급원리에 따른 가격형성 제도의 재정립, 소유개념의 수정, 폐쇄적 자력갱생 노선을 수정하여 세계경제권에의 참여 및 개방을 통한 경제구조의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II. 고르바초프의 경제 개혁과 극동

현재 고르바초프정권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련경제의 구조적모순에서 비롯된 심각한 경제침체를 어떻게 극복·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련경제의 혁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곧 경제부문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이며, 그것은 또한 국가소유 제도와 개인의 이해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주의 소유형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페레스트로이카의 개혁·개방 정책은 우선 사회주의에 대한 재평가 작업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재평가의 재차원으로 그들은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를 지적한다. 이제 각 분야별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이데올로기 분야에서 고르바초프는 공허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내세웠던 그들 전일자들이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방기했던 것에 대해 정면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모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주의사회의 모순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시베리아·극동의 경제개발에 소련당국이 이처럼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향후 이 지역의 경제개발 결과가 소련경제 전반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련은 이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경제개발을 위해 동아시아에 있어서 안정적인 국제환경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과거 동아시아정책은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고르바초프 이후 소련은 아시아 각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경제 분야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 체제가 가져온 초중 앙집권적 권위체제의 재반 문제를 인 생산의 불균형과 부족, 품질의 저하, 기술혁신의 정체, 대외 경쟁력의 약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고르바초프는 침체기에 빠진 소련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소련경제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 관리시스템 및 경제구조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경제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서방 수출확대와 외자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정책 면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양대 진영론'의 사실상 포기 등을 의미한다. 과다한 군사비 지출이 소련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중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련 당국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통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력, 기술수준, 노동력 등이 소련의 시베리아·극동 지역개발을 위해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드로 이카는 소련사회의 하부구조에 대한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든 부나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소련은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시베리아·극동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아 소련 경제발전의 관건은 시베리아·극동개발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련의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 및 시베리아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요청도 이러한 소련 경제개발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아 소련 극동 지역 및 시베리아개발에 소련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인접국가들의 경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 점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및 한국의 자본, 기술, 노동력의 유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실정이다. 또한 소련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해, 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변화하는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

소련의 대외정책 변화는 특히 아시아 지역과 관련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아시아 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르바초프가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에서 행한 정책연설과 1988년 9월 그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정책연설에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고르바초프가 시베리아 및 극동에서 중요 정책연설을 행한 사실이며, 이는 소련 대외정책의 중심이 점차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나 같은

의를 표명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모든 국가와의 상호관계에 있어 다양성 있는 관계를 추구할 것이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강조하고 특히 일본에 대해 일본이 "경제의교라는 다양한 관계수립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일·소 간의 협력증진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소련은 아시아 회원국들과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대외무역기구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즉, 고르바초프 이후 세력이 전개

로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세계,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가 민간차원으로 활성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에 경제·정치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이 체제가 불확실한 반소적인 기구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소련의 우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IV. 소련의 대외관계

8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소련에 있어 매우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미·일, 일·중 간의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군사협력관계의 증진은 미·일·중 반소 3각체제 형성의 우려를 가속화시켰으며 이러한 국제환경

중심의 팽창정책이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소 군사협력을 조정시키고 소련을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대외전략의 측면에서 고르바초프는 경제면과 군사면을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양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군사비가 경제 전반을 압박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첨단 전자무기의 시대에는 경제 전반이 발전되지 않는 한 이러한 첨단 현대 무기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고르바초프가 군사면을 동원하면서 경제발전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무기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수준의 낙후와 방대한 개발비용이 당장 문제가 되므로, 군비증강을 일시 유보하고 그 동안에 서방국과의 긴장완화를 통해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전략을 펼 고르바초프 정권은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 관해 소련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련은 종래 아시아·태

평양에서는 안도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평화적·지역별 협조에 적극 참여하여 소련이 갖고 있는 경제 및 과학적 잠재력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V. 소련의 한반도 정책

소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의 진출을 적극화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련정부는 1986년 4월2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공동협력에 관한 소련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태평양 지역을 군사동맹화하려는 마·일의 구상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남조선과도 경제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천명하며 한국에 대한 접근의 적극화를 이미 예증하기도 했다.

소련의 한국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측면과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련은 국내의 경제발전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소 수교 이후 그들은 최근 한국 기업들과의 교역 및 합작을 확대하고, 서울과 모스크바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민간 경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소련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최근 고르바초프가 밝혔듯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소련의 분명한 태도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과 그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검토해 보면 소련은 현행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협상유지를 전제로 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 실질적인 한국의 존재를 인정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그들의 주요한 협력대상국으로서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 소련은 한반도 문제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보다는 한국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한·미·일의 3각 동맹체제를 비난하였으나 한국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동북아시아의 축은 중·소관계이며

이의 반전여하에 따라 미·일·한반도와의 대외 관계가 변화된다

VI. 결론

이러한 고르바초프 대외정책의 전개·변화가 가장 현실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곳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1986년 7월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통해 소련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강조하고, 대·중·일, 미·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추구 등 해를 바탕으로 한 정치·외교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1988년 9월 그는 그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더욱 구체화시켜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한 7개항의 평화제안,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 가능성, 극동 경제협력 설치 검토 등을 시사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련의 경제기반이 극동·시베리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시베리아 장기개발계획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한·일·중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난날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북방 4개성' 문제로 양국간의 관계는 호전되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국경문제 해결로 평화적인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향후 소련의 경제발전에 관한적인 극동개발에 일본이 어느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는 변화될 것이다.

김 정 래

(한양대 중문연구소·연구원)



시베리아·극동 개발 위해 경제협력 적극 추진 국제질서 재편성으로 對美 정치·군사력 견제

해 9월의 유엔총회에서 세바르드 나체 소련 외상이 한반도를 분쟁·갈등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정책적 관심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은 분명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아시아 정책을 추진할 것과 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및 소련의 역할증대를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의 장애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소위 3대 장애 가운데 두 가지를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몽고 및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의 철수와 아무르강 및 우수리강의 양국 국경선 확정에 관해서도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합의할 용

되고 있는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은 정치·군사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확고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와 도전이며, 경제적으로는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개조라고 볼 수 있다.

소련이 이와 같이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째, 브레즈네프 시대의 군사적 팽창과 중소분쟁으로 야기된 미·중 간의 관계개선과 한·미·일 간의 동맹강화 등 일련의 상황이 이 지역에서 소련의 대미 군사·정치전략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다.

둘째, 국내의 경제개혁을 위하여 시베리아·극동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소련으로서 경제발전 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을 비

속에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없이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의 국익을 결코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소련은 그에 대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은 동북아시아의 축은 중·소관계이며, 중·소관계에 발원 여하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 일본, 한국, 북한의 대외관계가 재편성됨을 두차 역설해 왔다. 소련이 중국과의 관계개선 모색과 함께 미국과 새로운 대담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소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대외정책상의 새로운 인식변화에 기인한다. 그것은 첫째, 군사력

양 협력에 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E.C.C.)' 등 지역 경제기구를 조직하여 각기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지역의 미·일의 세계전략을 위한 군사·경제적인 불리와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태평양 협력에 대한 소련의 이러한 부정적태도는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여왔다.

소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제국주의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기구에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장차 이 지역의 경제변형에서 소련이 소의

경제개발을 위해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부족한 자본, 인력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한국과의 경제 분야에 걸친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안보·전략적 측면에서는 미·일·중의 위협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수교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접근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소련의 한국에의 접근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련에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최근 소련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제한적이나마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운동을

“아버지가 왜 기쁜지 아니?”

◀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을 찾은 송철군.
▶ 대우중공업 신원익과장(소재사업본부 생산1과)과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 송철군.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을 둘러본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아버지가 대학인으로 늘상 대하고 보던 것들과는 많은 부분이 다를거다. 50년대 후반만 해도 기껏해야 떠돌아다니는 농기구 소재생산이 고작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항공기나 자동차 엔진 소재를 만들고 있으니 엄청난 발전을 이룬 셈이지. 이곳이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면서 사반세기를 이어왔듯이 아버지의 삶도 이 소재생산분야 발전과 함께 해 왔단다.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밤을 새우며 연구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남들로부터 베네딕도란 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더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 그게 바로 대우의 정신이지, 내 삶의 철학이지. 네가 시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아버지는 무척 기쁘단다. 지난 우리세대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생으로 오늘의 발전이 있었단 것처럼 부디 너도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더욱 멋진 내일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의 꿈과 노력을 존중하며, 서로 이해할때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은 한결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